

Evelyn Rawski, Early Modern China and North East Asia

제 3 장 국가 의례의 통합성과 다양성

정치화된 에트니시티(원조민족)

국가 의례: 정치 체계, 상징 공동체, 집단감정 -> 중, 일, 한 차이, 비교
 유교: 조산 승배와 그 부수적 관념(인간이 신이 됨) -> 실용주의
 사마니즘: 일본의 신도, 믿음 체계. 아마데라스 승배의 국가 신도
 불교: 확산, 공유

1. 중국의 국가 의례: 유교식 만은 아니었다.

조상 승배는 사마니즘에서 출발. 주대의 '천명'과 함께 한대 유교에 통합
 한대부터 '정통' 관념이 발달(가계->왕통, 정치적 조상), 후대로 계승
 자연신 신앙-> 음양 오행론
 한무제의 태산 봉선(封禪) 의례-> 유교 의례로 합동
 기우제는 도교 의례. 중국은 다문화, 다인종 계국
 불교 의례도 역대 왕조에서 행해졌다. 轉輪王, 還生
 명, 청 會典 속의 의례; 吉禮, 嘉禮, 軍禮, 賀禮, 凶禮 - 다문화적
 청대의 다문화, 다인종; 堂子(샤먼), 愛新覺羅(샤먼, 티벳 불교), 關帝(도교)
 주요 기록 상의 유교 의례만 보면 안된다. 일본, 한국과도 다르다.

2. 일본의 국가 의례: '토착' 원천의 탈구축

신국, 천황제, 국가 신도는 발명품. 고유 신앙과 대륙 아시아 종교의 통합
 천황, 신도는 수입품 (도교와 송대 선불교의 영향)
 고대 한국의 영향; 하늘 승배, 마쓰리, 三種神器(劍, 鏡, 玉)
 황조신(아마데라스), 伊勢神宮, 大嘗祭 -> 도교, 불교 침투
 자기 神聖視; 神佛習合, 무로마치 시대의 요시다 신도(불, 도, 유 습합)
 이에야스의 천명 사상 도입

3. 한국의 국가 의례: 아이덴티티의 연설

고대 샤마니즘 -> 삼국 불교 도입 -> 신라 國師 제도 -> 고려 불교
 삼국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유교 도입 -> 장기간 불교 우위, 17 세기 유교화
 고려 시대; 불교 의례와 天祭, 圓丘壇(샤먼, 도교), 天子 의식, 용어
 조선 시대; 의례 표준화와 天祭 논쟁, 유교 의례와 원구단
 세조대 이후 원구단과 천자 의식 겸차 소멸 (주자학 천리화)
 효종대 비공개 부활; 반청 의식 - 대한제국 시기 부활
 복합; 사대와 '자존', 기자와 단군 - 조선 중심 질서, 소중화관
 청대 이후; 명=중화 계승의 자존 의식, 소중화관 강화, 복벌론

제 5 장 정체성 문제: 화이론

화이구분의 표준; 보편(문화)과 인종(외국인 혐오), 지리
 (전쟁, 침략과 적대감, 감정의 기억) (문화적 우월감, 멸시)

1. 중국의 아이덴티티 추적

청대; 夷는 인종(지리) 관계 없다. 타자 멸칭도 아니었다. (리디아 류)
 화이 표준 1) 문화; 화이는 移轉(변태, 변용) 가능 ex. 生蕃과 熟蕃

2) 인종; 다민족 국가였던 중국 내 화이 공존, 이=비 한족
 李大龍; 居華而華 현대 중국의 '민족융합'

Yang Shao-yun; 四夷의 중국화, 한화 ex. 漢(趙) 광문제 劉淵; '德'
 : 그러나 인종에 의한 구분 의식은 존속했다. 非我族類

3) 지리; 남북조 시대의 북조(ex. 拓跋氏 북위) 중원 점유 스스로
 중국인, 화인, 남조를 남인, 吳人, 唐 고조; 고구려 이적시
 명대; 土木의 變 (英宗, 1449년) 북원을 이적시(2, 3) ex. 丘濬(1421-95)
 古今正統大論?, 『贏蟲錄』

일본, 조선, 청조의 경우는? 문화를 표준으로 삼는 성향 강했을 것!
 (문화: 보편과 특수, 열림과 닫힘)

2. 일본 명칭

倭 (3세기) -> 大倭, 大和 (4세기) -> 일본 (7세기)
 임진왜란 시 『명실록』; 왜, 왜이, 왜노, 왜구, 왜적... 일본
 조선; 일본, 왜인, 왜구 - 여진족은 야인
 이적시의 표준은 조선 문명 1) 문화 ex. 申維翰 『海游錄』

3. 조선 명칭

문현; 삼한, 조선, 기자, 단군 일본; 한, 삼한
 중국 사서 東夷의 하나, 동시에 해동, 동국/동방, 青丘, 발해(해동성국)
 고려; 해동천하, 왕건은 스스로 천자, 해동통보(1102)
 조선; 동국, 해동 신숙주는 일본에도 적용 『해동제국기』

4. 중국 명칭

고대 일본; 震旦과 本朝(일본), 중국
 에도 일본; 유학자들은 중국, 중화, 공적으로는 한, 당
 국학자 大國隆正(1793-1871) '支那' -> 메이지 이래 중국의 멸칭
 조선; 한, 화, 한인, 화인, 화상, 천조인

5. 만주 청조와 화이론

초기 이적시: 王思任(1574-1646), 王端淑(1621-1701)의 詩, 顧炎武, 王夫之
 에도 일본; 林羅山, 林鷺峰編 『華夷變態』 조선은 소중화 의식

6. 일본의 화이론

고대: 일본 국내를 近畿와 이적 지역(蝦夷, 에조)
 중세: 정이대장군, 천황과 막부
 에도: 막번 체계, 봉건 체계, 막부와 번

일본=중화 의식; 西川如見『華夷通商考』. 荻生徂徠, 중국=異邦, 이국
유학자의 神儒習合, 山鹿素行 일본이 중국
→ 국학자 本居宣長 일본은 신국, 황국
신국 언설; 『古事記』, 『日本書紀』 神功皇后의 삼한 정벌, 멸시
『國姓爺合戰』(1715) 近松門左衛門의 人形淨瑠璃 -> 가부키화
鄭成功의 복명 운동을 각색, 달단 (여진족) 정복 이야기
(자국문화, 武威, 인종, 지리 중심의 '닫힌' 화이관)

7. 조선의 화이론
고려: 蕃(북번, 서번) 이적시, 태조 왕건은 거란을 금수지국
賊, 거란 요, 여진 금

조선 초기: 여진(야인)을 이적시 한편 교화, 向化人
병자호란 이후: 반청, 소중화 의식 ex. 『箕子八條志』 천하의 왕, 중화
<- 북학파 성대웅, 홍대용 등의 화이관

8. 만주족의 화이관
청 태조, 태종: 니칸 구룬(중국/인), 솔호 구룬(조선/인)

명을 남조로 칭함. 천하위공, 천명. 문화 표준에 의한 화이구분
반청 文字獄: 莊廷鑑 明史案(1661-63); 1736년, 건륭 2년 『명사』 완성
曾靜 사건(1728) -> 옹정제의 『大義覺迷錄』 (1729) '화이일가'

화이 구별과 화이 전이 가능성의 사이에서 근대 서양중심과 만남.